

통권 제58호 「여럿이 함께 숲이 되자」
의견광고를 기다립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년에 한번, 단체의 활동을 엮어내는 기관지 책자를 발간합니다. 올해 책자에는 제주의 오름, 용천수, 물문제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제2공항문제, 그리고 '자원활동가모임 올레'와 '한라생태길라잡이'의 활동 등이 수록될 예정인데요. 단체를 힘나게 하는 법, 기관지 의견광고에 동참해 주세요. 의견 문구를 작성해 보내주시면, 책자에 실어 추후 발송해 드립니다. 의견광고는 11월 27일(수)까지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문구를 작성

예시) 사랑해

-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제주를!
제2공항, 도민이 결정한다!!

 - 작성한 문구와 함께 광고금액(3만원 이상), 이름(별칭 가능)을 결정하여,
 - 010-5706-2184로 문자를 보내거나, js@jejungo.net으로 메일을 보낸다.
 - 책자에 내 의견광고가 실린다.
 - 책자를 받아본다. (12월 말 발송 예정)

후원계좌 | 제주은행 33-01-037434 (제주참여환경연대)

교육문화카페 차랑 공간을 대여 합니다.

세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문화카페 사람 공간을 내어하고 있습니다.
개방, 공유, 참여의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대여 가능합니다.

- ▶ **내여시간** : 평일 10:00 ~ 21:00, 주말(토, 일) 10:00 ~ 17:00
 - ▶ **시설 및 장비** : 빔프로젝트, 스크린, 냉난방, 정수기, 커피머신기,
테이블(10개), 의자(35개)
 - ▶ **주소** : 제주시 고산동산 5길 22 3층(이도이동)
 - ▶ **대관문의** : 064-753-0844



가족이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임전 – 강하준 이사님의 주전으로 단체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오래 오래 함께 해요~
이경미 – 제2교학 반대에 희씨는 무슨을 보며 같이 응원하고 싶다고 카와이한 선수입니다.

이정미 - 제2공항 반대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 같이 응원하고 싶다고 기입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은 - 이기주 아나운서의 출현으로 다행히 이역이 달았습니다.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 감사합니다!

박시웅 – 이글주 이사님의 주선으로 단체화 안면이 좋았습니다. 세주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 감사합니다.

관로미 – 각성의 이사님이 궁을 다시 단체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각사행 대 ***

기기용 — 나라이 나는 비상을 위해 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잘 이용해 너 층 베에 잘 돌려라!

나 마드라스에 함께 학제수료다.

상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10월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생회원

강태봉 고성호/김영신 김갑성 강국주/김혜전 김종현 김혜전/김국주 대효 문성철 손노선 양정동 오승진 유흥준 윤정우 이자후 이재홍 이중현 정용하 하남춘 하진명/신성희 황운익

일반화원
자경구 자경미술관

* 사무처의 실수로 명단이 누락된 회원님은 연락주세요 ^_^

명회계

9/10월 글금글이

구분	세부항목	9월	10월
수입	회비수입	9,598,000	9,321,000
	사업수입	143,000	345,000
	기타수입	365,950	309,230
	전월이월	10,980,627	9,845,048
	수입 합계	21,087,577	19,820,278
지출	인건비(급여 및 4대보험 등)	7,696,563	6,568,990
	도서인쇄비	45,000	45,000
	통신비	124,892	374,541
	여비교통비	44,100	46,193
	지급수수료	349,690	457,450
	수도광열비	253,110	68,640
	복리후생비	397,000	365,800
	소모품비	41,800	20,000
	회의비	43,200	—
	세금과공과	39,310	37,800
사업비	수선비	70,000	—
	사무용품비	713,424	220,000
	연대사업비	229,550	240,000
	회원사업비	205,000	—
	환경교육사업비	87,500	65,000
	참여자치사업비	30,000	4,500
	출판사업비	872,390	179,140
지출 합계		11,242,529	8,791,054
이월 총계		9,845,048	11,029,224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회원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온라인으로 친구에게 추천하는 방법 → 주인님께 친구가입과 후원을 권유해주세요.

우리 단체를 힘나게 하는 방법 → 주위분께 회원가입과 후원을 권유해 주세요

| 회비납부 또는 후원계좌번호 | 제주은행 12-13-001231 (예금주 제주참여환경연대) • 농협 901022-55-000435 (예금주 제주참여환경연대)



도시공원 민간특례, 옳은 선택일까?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들어보셨나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정부·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방치해둔 곳, 문제는 이곳에 사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공원을 조성한답시고 사유재산권 행사는 제한되었는데, 정부는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도 조성하고 않자 해당 토지주들은 이것이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현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현재는 1999년,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2000년 법이 개정되어 '지금으로부터 20년 후까지도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에 공원을 실제로 조성하지 않으면 그곳은 공원이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일몰)'는 내용이 명문화됩니다. 그 시한이 바로 2020년 7월,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전국에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곳은 수두룩, 예산은 없고 시간은 급박한 상황,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2009년 국토교통부가 내 놓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의 고육지책인데요. 조성해야 할 대상공원부지가 5만㎡ 이상 되는 곳에 한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전체 면적의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대신, 30% 범위에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는 이미 도시공원 민간특례로 엄청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단구근린공원과 단계근린공원, 경기도 동두천 중앙문화공원, 충북 청주 영운근린공원 등은 특례사업을 위해 민간업체까지 선정했지만, 건설경기가 악화되자 업체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금싸리기 땅으로 남은 도시공원에 민간특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터져 공무원 1명이 구속되고,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전, 부산 등지에서는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100% 공원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버리고, 3,155억을 추가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간특례 카드를 끄내들었습니다. 특례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아트센터가 있는 오동봉 공원과 중부공원. 미분양 주택이 1,200여 채에 달해 세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제주의 현실에서 몇 천여 채의 주택이 도심에 들어설 경우 발생하는 교통체증 유발과 기반시설 포화 문제까지 고려하면, 이는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최악으로 떨어뜨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를 70%까지 지원하고, 발행한도 제한에서도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원의 온전한 보전, 제주도는 무엇이 두려운 거죠?

무너지는 오름, 어떻게 해야 하나?



오름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오름 훼손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 사진들은 우리 참여환경연대가 훼손되는 오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새별오름과 용눈이오름은 기울절로 접어들면서 한 시간당 500명 정도가 탐방하고 있어, 하루 3천명 정도가 탐방하고 있고, 대규모 수학여행단도 한꺼번에 오름을 탐방하여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훼손을 막고 지속 가능한 탐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송악산처럼 휴식년을하거나,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처럼 탐방예약제를 통한 제한적 탐방만이 방법입니다.

활동 이모저모

9월

- 9월 2일 제2공항비상도민연선회의
제2공항 공론화 청원 거리서명(제주시청)
생태문화해설기모임 올레: 송익산, 도너리오름 휴식년제 모니터링
- 9월 5일 물절약 에피소드 공모전 시상식(자람)
- 9월 10일 훼손오름 모니터링(용눈이오름)
제2공항반대 집중선전전(성산지역)
- 9월 1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연선회의
정기이사회(선흘2리)
한라생태길리잡이: 관음사 모니터링
- 9월 18일 제2공항 공론화청원서명제출 기자회견
- 9월 20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아스타호텔)
- 9월 23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연선회의
- 9월 26일 훼손오름 모니터링(새별오름)
- 9월 30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소음 즐속부실 평가 규탄 기자회견(제주도의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연선회의

10월

- 10월 1일 JIBS 제주를 말하다 토론_카지노 대형화 악인가? 독인가? 충청 공동대표)
제주MBC 물 절약 현장 인터뷰(신천지아파트)
- 10월 4일 제주시 시민원탁회의 회의(복주라 국장)
- 10월 5일 2019 신흘곶 축제 환경워크숍 강의_제주의 생명수, 지하수의 위기(충영철 공동대표)
제주 그대로가 아름다워(제주시청)
- 10월 8일 국회 국토위 제주도 국감 대응 도청앞 피켓팅
- 10월 10일 제주물세계포럼 패널토론풍(충영철 공동대표)
- 10월 11일 용천수 살림 프로젝트(대정 용천수 모니터링)
- 10월 12일 용천수 살림 프로젝트(초전 용천수 모니터링)
- 10월 14일 정기이사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촉구 기자회견
- 10월 16일 제주 제2공항 강행 중단! 문재인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 및 상경농성 결의대회
- 10월 21일 생태문화해설기모임 올레 : 물찻/문석이, 오름 휴식년제 모니터링
탐라생태안내자 양성교육: 문석이 오름 훼손 오름 모니터링(용눈이오름)
- 10월 23일 제2공항 결사저지 제주도민 총력 집중집회
- 10월 24일 제2공항 도청 앞 집단단식 농성투쟁 돌입
훼손 오름 모니터링(새별오름)
- 10월 26일 탐라생태안내자: 안뜨렁을 만나러가는 길
탐라생태안내자 : 해설의 기쁨(동백동산)
- 10월 28일 올해 초 산전지아파트 50가구와 개인주택 50가구에 걸 수기기를 설치하고, 물절약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제2공항결사저지 범도민대회 (10.23)



우리 단체, 절수기기 사용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함께 나누기 위해 '물절약 에피소드 공모전'을 개최했는데요. 공모 결과, 절수기기 설치 이후 물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느낌 점을 가족과의 대화로 재밌게 풀어낸 고정희 님이 1등에 선정되었습니다!! 짹짹!! 글 내용이 궁금하다면, 포털에 "물 절약하는 우리집"을 검색해주세요. +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9.20)



10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은 무얼 하셨나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활동가들은 '제2공항 공론화특위 구성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길 기원하며, 피켓팅을 이어갔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의 어이없는 심사보류 결정으로,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까지 기로막힌 채 하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도장을 경계하고, 도민주권시대를 열겠다던 도의회는 언제쯤 만나볼 수 있는 걸까요?

이사회, 현장속으로! (09.16)



매달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던 정기 이사회, 이번엔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바로 동글테리파크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선흘2리!! 선흘2리에서 이지현 반대대책위원회원에게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세겨듣고, 투쟁방향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 단체도 반대대책의 활동에 함께, 더욱 강하게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물절약 에피소드 공모전 시상식(09.05)



올해 초 산전지아파트 50가구와 개인주택 50가구에 걸 수기기를 설치하고, 물절약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에 두 번 4곳의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12월까지 휴식년제를 하고 있는 도너리오름을 다녀왔는데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살짝 간 틈을 비집고 도너리오름에 올라비가 많이 와서 파인 곳들과 쓸리간 죽물들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곳은 날씨에도 열심히 해주시는 자연활동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한라생태길리잡이: 안뜨렁을 만나러 가는 길(10.26)



2019년 9월 다시 한 번 '안뜨렁을 만나러 가는 길'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이번에는 안뜨렁풀과 이를 사용했던 곤동미을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은 잎이빠진 미을이 된 곤동미을을 보며 4,3의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리며 아이들과 묵념으로 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제주의 문화, 생태, 역사까지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는 선생님들 역시 멋지십니다. ~~~!

생태문화해설기모임 올레 : 도너리오름 휴식년제 모니터링(09.02)



생태문화해설기모임 올레 자연활동가 선생님들은 한 달

탐라생태안내자 양성교육: 문석이오름, 동백동산, 안뜨렁을 가는 길

4월부터 달려온 탐라생태안내자 양성교육이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10월엔 생태문화해설기모임 올레와 한라생태길리잡이 활동에 동행하여, 어떤 활동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억혀 나갔는데요. 도토리 선생님의 해설의 실제 수업을 마지막으로 8개월 간 달려온 교육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당신이 있어 제주가 든든합니다!



훼손 오름 모니터링: 새별오름(10.24)



역시 계절 10월!! 역세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새별오름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요. 예쁘게 핀 역사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더 안쪽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느라 오름은 더욱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에 580명이

라는 숫자를 감당하며 꽃들이 제주의 멋진 풍경을 가지고 있는 새별오름!!

언제까지 맛진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들게 하는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용천수 살림 프로젝트 with 임형묵 감독 (10.12)

10월 용천수 모니터링은 '조수 응덩이'로 한창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임형묵 감독님과 함께 했습니다. 임형묵 감독님은 조수 응덩이에서 다큐를 찍으시면서 여러 바다